

2002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도시철도건설사업)
  - 예산액 : 1,525,620백만원
  - 예산현액 : 1,690,308백만원
  - 수납액 : 1,668,891백만원
- 세출결산(도시철도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예산현액 : 1,704,027백만원
  - 지출원인행위액 : 1,647,493백만원
  - 지출액 : 268,729백만원
- 이월액 : 268,729백만원
  - 명시이월 : 175,032백만원
  - 사고이월 : 93,697백만원
- 불용액 : 56,534백만원

2.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액 (B-A)	비 고
합 계	1,690,308	1,668,891	△ 21,417	
도시철도 건설사업	1,601,108	1,579,691	△ 21,417	
순 세 계 잉 여 금	0	4,332	4,332	
이 월 금	164,688	164,688	0	
전 입 금	405,459	405,745	286	
잡 수 입	9,784	23,386	13,602	
국내지방채	556,686	561,651	4,965	
국외지방채	464,491	419,889	△ 44,602	
도시철도운영	89,200	89,200	0	
국고보조금	89,200	89,200	0	

(다음 페이지 계속)

□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A-(B+C)
합 계	1,690,308	1,633,774	1,365,045	268,729	56,534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1,133,622	1,077,088	808,359	268,729	56,534
건설관리비	12,634	11,779	11,517	262	855
건설사업비					
2기2단계	33,604	28,124	22,827	5,297	5,480
기존노선	109,181	80,886	35,648	45,238	28,295
9 호 선	321,365	321,175	103,731	217,444	190
기 타	26,861	26,802	26,314	488	59
지방채상환	619,638	608,322	608,322	0	11,316
예 비 비	10,339	0	0	0	10,339
도시철도운영	556,686	556,686	556,686	0	0
전 출 금	556,686	556,686	556,686	0	0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 : 교통국(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에 계상

□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A-(B+C)
합 계	13,720	13,719	13,719	0	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3,720	13,719	13,719	0	1

4. 검토의견(전문위원:임령)

□ 2002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결산(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2003. 6. 11. 시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02년도 예산현액은 1조 7,040억 2천 7백만원으로 지하철건설 및 운영 관련부분에 투자되었습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액 1조5,256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647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1조 6,903억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7%인 1조6,689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14억원입니다.
  - 세출결산액은 당초예산액 1조5,256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647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1조6,903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현액대비 80.8%인 1조 3,650억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8%인 2,687억원이며, 예비비 103억 전액 포함 56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세입결산액은 137억2천만원으로 교통국(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으며
  - 세출결산액은 광역철도 3개노선 건설분담금으로 137억 1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1백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수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 2002년도 미수납액은 세입예산 1조6,903억8백만원에 세입수납액 1조 6,688억원 9천 1백만원의 차액인 214억 1천 7백만원(1.2%)으로써, 미수납내역은
  - 잡수입 136억 2백만원, 전입금 2억 8천 6백만원, 국내지방채 49억6천 5백만원 등 총 188억 5천 3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 순세계잉여금이 43억 3천 2백만원 증가된 반면
  - 국외지방채 446억 2백만원이 미수납되어 발생하였으며
- 미수납액이 발생한 증감 주요원인은 일본자금인 사무라이본드를 차입하여 지하철건설사업비에充当코자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외지방채 매출감소로 인하여 미수납액 446억 2백만원 발생하였고, 2002년도 잡수입에서 불용강제 매각수입이 당초예산 51억원에서 95억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4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잡종재산매각수입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되는 등 총 잡수입 예산액이 당초 98억원보다 237.7% 늘어난 234억원 및 전입금 및 국내지방채, 순세계잉여금액도 총 96억원 증가되어, 최종 증감결과 214억 1천 7백만원의 미수납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차후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임으로 지방채발행에 의한 세수증대는 최소화하여야 건설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지하철건설부채중 지방채상환은 자체재원이 부족하므로 국가보조금 등 세입증대방안 등을 강구하여 재정적자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차후 국제환율 등 국제금융시장의 정확한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외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결정 및 수납이 격차 없이 세입세출비례원칙에 맞춰 정확한 추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1조6,903억원 대비 3.3%인 56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발생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139억원, 예산집행잔액이 275억원, 예산절감이 48억원, 예비비가 103억원으로써
  - 집행사유 미발생 139억원의 내역은
    - 6, 7호선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억원
    - 차입금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50억원
    - 국외지방채 매출감소로 인하여 63억원
    -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 운영 등으로 6억원 등이 불용되었으며
  - 예산집행잔액 275억원은
    - 지하철 이용환경개선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비로 편성된 예산현액 973억원 중 28%인 275억원이 불용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 서울지하철은 수송분담률 약 40%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로서 지하철노선 확충을 위한 양적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하공간 편의시설 확충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하철 이용이 힘든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 등 노약자가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지하승강장까지 또한 노선간 환승장 이동 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수평자동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과 계단경고표지,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의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본예산 973억원중 28%인 275억원이 불용된 것은 월드컵행사 및 장마철 굴착통제로 인한 공기연장 및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불용액만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불편을 감수하고 다녀야 하는 시민에게 서울지하철의 편리함을 기대하기란 아직 요원한 바, 이는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사업부진으로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며 또한 세출예산 편성시 계획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과다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이월액은 예산현액 1조6,903억원 대비 15.9%인 2,68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이 937억원이고, 명시이월이 1,750억원으로, 사고이월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 승강편의시설확충공사비 418억원
  - 지하철9호선1단계건설사업비 423억원
  - 동묘역·동마장역건설사업비 86억원
  - 지하철통합교육원 신축공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 건설관리비 3억원 등이 이월되었음
- 앞서 「불용액에 대한 의견」에서도 언급했듯이 승강편의시설확충공사비는 전체현액 973억원중 280억원을 집행하고 418억원을 이월시켰으며 275억원이 불용된바, 이는 전체예산대비 71.2%가 작년도에 이월 내지 불용되어 당해년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으로써, 특히 이월된 사유를 보면 유관기관 사전절차 지연 및 설치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일어난 사항이라고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해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예견된 일이며 또한 고질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일어난 사항으로써 이는 예산 단년도 원칙을 무시하고 사고이월 제도에 편승하여 우유부단하게 사업을 시행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향후 도로점용 등 유관기관 사전절차가 사업계획전에 이루어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증단계를 거쳐야만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 건설사업비중 2002년도 예산현액은 3,213억원으로 이중 424억원이 사고이월된바, 이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적기에 공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 이월액과 불용률이 최소화됨으로써 지하철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